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기대효과

- 명 칭 :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 2006 World Ginseng EXPO, Geumsan, Korea
- 기 간 : 2006. 9. 22(금) ~ 10. 15(일). 24일간
- 장 소 : 금산군 금산읍 신대리 인삼유통센터 일원
- 주 제 : 생명의 뿌리, 인삼(Ginseng, Root of Life) - 부 제 : 인삼, 그 가치의 재발견
- 회 장 규 모 : 129천평(인삼약초시장 포함)
- 예상 관람객 : 660천명(내국인 647천명, 외국인 13천명)
- 총 사 업 비 : 361억원(직접사업비130억, 지원사업비 231억)
- 주 차 공 간 : 53천평(대형 1만평, 소형 4만평, 학술회의 3천평)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개장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이며 예상 관람객 66만명(내국인은 647,000, 외국인은 13,000)이 엑스포를 관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엑스포장의 접근은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대 진입이 가능하고, 행사장 인근의 추부IC, 금산IC 연결도로 확포장등과 대형주차장 2만평, 소형주차장 3만평 확설회의 전용주차장 3천평을 마련 하고 소형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는 전용버스를 운행하여 관람객에 편의를 제공 하겠으며, 관람객의 숙박 대책으로는 금산군 지역 내 1,161개의 객실과 인근 대전,논산,옥천,대둔산,영동,무주등의 모텔,팬션,유스호스텔,호텔을 망라하여 모두 11,368 개의 객실을 활용할 계획으로, 등급별, 유형별 관리 카드화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엑스포장주변의 먹거리 금산의 맛은 특별하다 담백하고 칼칼한 음식맛 으로 자연에서 얻은 무공해 자료를 이용하여 사람몸을 자연에 가깝게 인도하는 건강식으로 금산이 아니면 맛을 볼 수 없는 특이한 요리들이 대부분으로 인삼 한정식과 인삼

의 본고장에서 맛 볼수있는 전통 삼계탕의 진미와 용강등 금강상류에서 어부들이 직접잡은 재료를 이용하는 얼큰한 어죽에 칼칼한 민물매운탕, 민물고기를 고추장에 조린 도리뱅뱅이와 민물고기 튀김도 그맛이 특별하고, 추부면 마전리 일대와 금산읍일원의 자연산 미꾸라지를 사용한 재래식 추어탕의 진수와 미꾸라지 튀김, 숙회, 조림등의 메뉴가 다양하고 저렴한 음식 맛을 볼수 있을 것이다.

세계최초로 개최되는 금산인삼엑스포의 주제관(800평)에서는 인삼 인체 각 부문에 미치는 효능연출, 인삼의 발전과 비전, 인삼이 인류에주는 영상메세지 연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제관(600평)에는 인삼제품 및 신기술 개발소개등 다양하게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인삼전시관(1,016평)에서는 2천여년의 역사를지닌 인삼재배의 변천사와 유통, 인삼산업의 미래를 내다보는 다양한 볼거리가 전시될 예정이며, 인삼교역관(300평)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무역협회등을 활용, 인삼생산 및 주요소비국 14개국 20개업체 100여명의 Buyer를 유치 투자상담을 실행하고,

국내의 100여개 업체 200여명의 생산 제조 유통 관계자에게 상품의 구매상담 판매할 예정이며, EXPO가 끝난 이후에도 국내외의 Buyer들이 자유롭게 활용 하도록하여 실질적으로 고려인삼의 국제교역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개방형 엑스포행사장인 인삼약초시장 43천평(국제인삼시장, 수삼센터, 인삼전통시장, 인삼약령시장, 인삼종합쇼핑센터)에 1,200여개의 점포에서 인삼과 관련된 갖가지 약초 판매도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이다.

금산 인삼약초시장은 서울의 경동시장 대구의 약령시장과 더불어 전국의 3대 약령시장의 하나이다.

인삼엑스포의 주요과제인 국제인삼학술회의에서는 세계의 저명한 인삼관련 학자인 영국의 Northumbria大 Keneedy박사를 비롯하여, 일본의 도야마大 사이키박사, 미국 콜롬비아大 Scott Small · 김태환박사, 경희大 유종훈교수, 고려大 서성욱박사, 서울大 양현욱박사, 울산大 조영걸교수등 8명은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구명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세계적인 상품가치 창출에 기여 할것이며, 이때 국내외 저명한 학자 800여명

이 참여하여 고려인삼의 신비로 자리 매김할 젊은 층의 과제와 노년층의 과제 인류건강 공동과제를 토대로 연구한 고려인삼의 효능에 대한 진기함을 구명, 과학적으로 이론을 정립하여 고려인삼과 타국인삼의 차별화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국제인삼학술회의에서는 중점적으로 인삼의 효능중 「기억력증진 효과」 「노인성치매 효과」 「항암 효과」 「항에이즈 효과」등을 고려인삼의 세계화 브랜드화 추진의 호기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엑스포기간의 이벤트 행사는 관광객과 함께 즐기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 "마당놀이 강치사"를 주제공연으로 인삼캐기, 인삼떡 만들기, 인삼음식 만들기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세계민속공연, 타악페스티벌, 관람객 참여무대등이 있으며, 공식행사로 개막식, 폐막식, 국가의날, 시·도의날 등이 열리는한편 한가위 큰마당등의 상설행사가 매일 매일열려 관람객에게 볼거리와 먹거리는 물론 잊지못할 추억을 남겨갈수 있는 체험의 장을 제공할 것이다.

이를위하여 지난해에는 엑스포 조직위원회의 구성과 기반 체제구축, 조직위원 위촉(36명), 표상물

개발 및 등록, 홈페이지 구축, 전시연출 제안경쟁 공모와 10개분야 63개 단위 사업에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였으며, 올해에는 4월중에 완공하는 인삼유통센터와 행사장 주변 순환 외곽도로(국도 37호) 개설등 총 18건 3,200억원의 SOC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전시연출 대행업체를 3월중에 선정하고, 행사장 시설공사를 6월중에 착수하는등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내년도에는 국내외 80여개 업체 (국내65, 국외15)를 대상으로 전시참가를 유도하여 외국인삼과 고려인삼을 직접비교하므로써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널리 알려 인삼종주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한편 인삼산업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다양한 수익사업(31억원)에는 입장권 판매와 휘장사업의 공식후원자, 공급자, 상품화권자, 식음 및 판매시설에 대한 임대사업자등을 조기에 선정하고 대기업등을 방문하여 협찬사업자를 선정하는등 금산세 계인삼엑스포 사업에 대한 홍보와 함께 참여업체에게 기업이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경제엑스포를 성취 하는데도 주력하게된다.

인삼엑스포 개최를 계기로한 지역경제 창출은 약 805 억원(직접수입 31 억원, 관광등기타수입 774 억원)으로 예상되는데 금산을 중심으로한 충남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외를 대상으로 전시참가 유치활동전개와 관람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모색하여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으로 매진하는데 충청남도과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 그리고 금산군이 삼위일체가 되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충남도의회-충발연 의정발전 워크숍 도의회-연구원간 협력파트너십 구축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종학)와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14일 오후4시 충남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의정발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환기 충청남도 의정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실시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도의원 전원과 다른 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대거 참여, 충남도의 당면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는 등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행정자치부 자치인력개발원 이주희 교수는 "분권화시대의 지방의정 활성화방안"에 대해, 충청남도의회 최민기 의원(행정학박사)은 "충청남도 의회의 책임과 역할"이란 주제를 가지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에 이어 도의원과 충발연 연구진간의 지역현안사업과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주고받는 등 도의회와 연구원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았다.

이날 토론에서 정종학 행자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충발연과 도의회 간의 업무협조 및 상호 정책연구가 미흡했으나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지역문제에 대해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워크숍을 마친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은 "앞으로 크고 작은 지역현안문제에 대해 도의회와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 의견교환을 하겠다"고 말했다.

도시브랜드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워크숍 개최 충발연 산업디자인팀 주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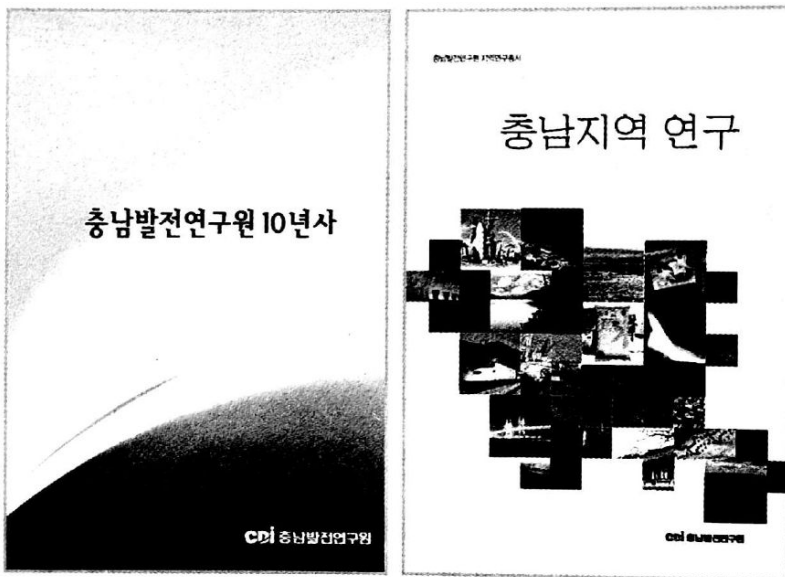
충남발전연구원 산업디자인팀이 주최한 「도시브랜드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워크숍」이 지난 4월6일 오후3시30분 안면도 롯데 오션캐슬 세미나실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장옥선 교수(호서대)가 '도시개발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유기준 교수(공주대)가 '아산의 문화관광을 활용한 문화마케팅 전략도시개발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남택영 교수(대덕대)가 '표정있는 도시만들기'라는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가졌다.

또 이충훈 팀장(충발연 산업디자인팀장)이 '도시브랜드 개발전략'이라는 주제로, 윤홍렬 교수(남서울대)가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위한 가치창출'이라는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가진 후 자유토론이 있었다.

이날 워크숍은 도시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자료 및 의견이 소개되어 도시브랜드의 개발 및 이미지 전략이 제시되는 등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연구원10주년 기념사업 연구원10년사 · 충남지역연구 발간



충남발전연구원은 연구원 개원1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으로 '충남발전연구원 10년사'와 '충남지역연구'를 출간했다. (사진)

'충남발전연구원 10년사'는 충발연 10년의 역사를 기록, 정리한 것으로 이 책에는 연혁, 연구원의 변천과 현황, 연구사업 실적, 회고와 전망 순으로 되어 있다.

또 '충남지역연구'는 충남지역과 관련한 논문집으로 지역개발, 산업·경제, 문화·관광, 환경·생태, 자치행정 순으로 되어 있으며 총 23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충남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충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센터장 백남훈)이 주최한 충남 여성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 4월26일 공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관련 연구자, 학생, 여성농업인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여성인적자원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남미애 교수(대전대)가 '충남여성의 자원봉사활동 현황과 인적자원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신옥 관장(청주 시니어클럽 관장)이 '여성 노인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재사회화 교육'이라는 주제로, 김정미 연구관(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업연구관)이 '여성농업인의 인적자원 실태와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가졌다.

이어 이재완 교수(공주대), 황창연 팀장(충남여성정책개발원 교육팀), 최영선 사무국장(전국주부교실 충남도지부 사무국장)이 각각 토론에 나섰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백남훈 센터장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여성인적자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충남여성인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충남지역혁신협의회 분과 포럼 개최 스웨덴 고텐부르크 박상철 교수 강연



충남지역혁신협의회 문화관광분과와 인적자원개발분과는 5월 25일 스웨덴 고텐부르크 대학의 박상철 교수를 강사로 「덴마크의 지역 혁신과 지역개발 전략」에 대한 강연을 들은 후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날 포럼에서 박교수의 강의내용은 '투입된 노력에 비하여 충분한 구체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와 '덴마크의 혁신체제와 비교하여 문제점은 없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명강연이었다.

박상철 교수는 "한국에선 혁신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혁신이 반드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이테크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IT, BT, NT 등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지역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산업이 혁신의 대상임을 지적"했다. 또한 세계화 전략의 하나로써, '세계 최고'를 추구하는 전략과 함께 '세계 유일'이라는 전략이 유효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토론에 나선 이영훈 인적자원개발분과위원장은 정부의 대학교육 관련 정책의 차이점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인력양성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